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살날 연휴, 미국에 사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시봉 콘서트를 보며 울고 웃으며...

여 버린 이 시대에 노래인생에 자신을 받쳐며 밥만 먹여주면 노래하던 이들을...

세시봉의 감동, 호모루덴스 우정

라니, 이틀로부터 많은 이들이 느낀 감동의 핵심은 오래된 음악 우정이라는 생각이...

세시봉 콘서트를 보며 '우리로 저렇게 늙자'라고 친구들과 다짐한 것은 새해의 축원이었다.

디스 (Oldis but Goodis), 오래된 것이지만 좋은 것의 가치를 일깨워 준 사건이다. 세시봉 친구들이 서로 협담을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세시봉 친구들은 '남성판 맘마미야'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음악을 매개로 삶을 구원하는 우정의 힘을 보여준 영화들이 떠오른다. '즐거운 인생'...

역할에 지쳐 떨어져 나간 중간 남자들이 우정의 힘에 기대 밴드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을 정겹게 드러내 준다.

오래된 친구는 삶의 보물이다. '그건 너무 좋은 거야'라는 뜻의 불어 세시봉(C'est si bon!)이다. 이브 몽땅이 부른 이상송은 '서로 팔을 낀 채 노래 노래를 부르며 아무데로나 떠나는 건 세시봉!'이라고 노래한다.

아마도 그 상송을 좋아하는 분이 고달픈 전후 음악다방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리라. 그리고 40여년이 흐른 후 세시봉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상송 제목이 아니라 음악 우정의 상징어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가축 매몰지 2차 환경오염 철저히 막아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된 가운데 대규모 '2차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으로 6일 현재 살처분된 가축이 310만 마리를 넘어섰고 전국 매몰지는 4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매몰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구제역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AI의 발생으로 6개 시·군 114곳에 274만여 마리의 닭·오리가 매몰됐다.

문제는 전국에 산재한 매몰지에서 다량한 환경오염 후유증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축 전염병 차단에만 급급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없이 산비탈 등 가축을 몰아서는 안 될 곳에 매몰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 매몰처리로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축매몰지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엄청난 재량을 불러 올 수 있는 가축 전염병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짜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 '친정체제 강화'가 개혁인가

진보 성향의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제 입맛에 맞는'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기획관실 신설 및 확대 개편은 교육 예산 및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교육청은 기획 가능의 혁신TF팀 대신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직무기능 성격의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추진 중이다.

확대당관 아래로 다시 문지계 밑에 따라 조직 내 갈등 및 공조지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 교원회 전문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원칙과 정도를 벗어났다는 데 있다.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문제가 화급하지도,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니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NGO 칼럼

류봉식



이번처럼 설 명절 민심이 심란했던 적이 있었던가. 서민들은 처사는 물가에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나마 마음을 달래줄 고향방문도 쉽지 않았다.

구제역 발생 2개월만에 전체 사육가축의 22%에 해당하는 310여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벌써 2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들어갈 판인데, 더 큰 걱정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디

있던 것이다. 원망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애자중지 기르던 가축을 생매장 해야했던 농민들의 절망과 한숨 앞에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이 나서 '집주인이 도둑잡을 마음이 없다', '보상금 타내려 구제역 방역에 나서지 않는다' 등 방역실책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구제역은 농민들 개개인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수습할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다. 국가차원의 총력대처가 없으면 막을 수 없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 한다.

구제역 정부 대책 너무 한심하다

까지 갈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다.

1. 2차 백신접종에 국내 최고수준의 철물 같은 방역시스템을 가동했던 국립 축산과학원조차 구제역에 구멍이 뚫리는 판에 그 어디인들 안전한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AI로 인해 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전남이 구제역피해만은 아직 없다 하여 다행이라고는 하나 언제까지 안전할지 누가 알 것인가? 어서 재발이 재앙이 끝나기만을 빌어볼 뿐이다.

도대체, 처음 겪는 일도 아닐진대 이번에는 어찌하여 전 국토를 속대발로 만들도록 무기력했던 것일까. 김대중 정부 때 '방역도 국방이다'며 군 병력까지 신속하게 투입하여 총력전을 펼친 결과 조고기집에 성공했던 경험을 보더라도 초동방역시스템만 확실하게 가동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전국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나라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생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당시 전염 불사를 외치면서 서해군사헌원에 치중한 탓에 초기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대응에 실패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

더구나 축산업이 갈수록 밀식 사육, 기업화, 세계화되면서 국가적 방제시스템은 이미 국가안보차원에서조차 중대한 사안이 된 마당에 '농민 탓'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다.

농민들은 지금도 방역현장에선 범주를 벗어나 구제역을 막기 위한 사무를 벌이고 있다. 부처를 뛰어넘어 범 정부 차원의 비상총력대응도 부족한 판에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매뉴얼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그 의도부터가 불순한 개헌 모의를 할 때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재앙을 막지 못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농심을 달래고 구제역 진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전염병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차 침출수 오염방지,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 등 긴급조치와 축산농가의 피해보상과 축산업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재앙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정보연대 집행위원장)

기고

이영숙



우리는 몰랐듯 한 변화 속에 등 떠밀려 생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출현이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과학기술분야는

났다. 권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이과선택 비율이 수도권이 23.9%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36.1%로 이 지역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준비에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공계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개발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새로운 도약의 한 해 되길

남성 중심적인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전공 여성은 결혼과 육아문제로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

이제는 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열악한 자원과 사업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73%이나 여성은 41%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주택가 소화기 비치 홍보해 화재 효과적 대처를

소방도로에는 차를 주정차시킬 수 없다. 그러나 도심에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화재진화의 어려움 때문에 소방관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주택가 소방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는 뉴스 멘트도 단골이 돼버렸다.

지역의 발전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 흐름을 파악하여 공급과 수요의 통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지역사회 모두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2011년이 되길 희망해 본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주택가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곳이 별로 없고 주민들은 이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어느 날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곳곳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초기진화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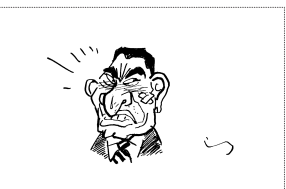
▲홍명호·광주시 서구 품양동

無等鼓

현직 국가 원수 중 가장 오랜 장기집권자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다. 그는 지난 1969년 무혈 쿠데타에 성공, 왕정을 무너뜨리고 최고 권좌에 앉은 지 무려 42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30년 이상 권좌를 지키고 있는 독재자도 손에 꼽힌다. 카다피를 포함해 테오도로 오비앙 등게카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과 주제 에두아르두 두산투스 앙골라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 모두 4명이 랭크돼 있다.

무바라크



2011년 1월 25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이집트로 번지면서 13명이나 된다. '한강의 기적'과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

2주가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이집트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가장 큰 원인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 때문이다.

비밀경찰을 통해 인권을 유린했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무바라크의 허물도 적지 않을 터다.

살피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다. 무바라크는 반정부 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내각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위 군중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 하야는 요지부동이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무바라크의 허물도 적지 않을 터다. 얼마나 동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오로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